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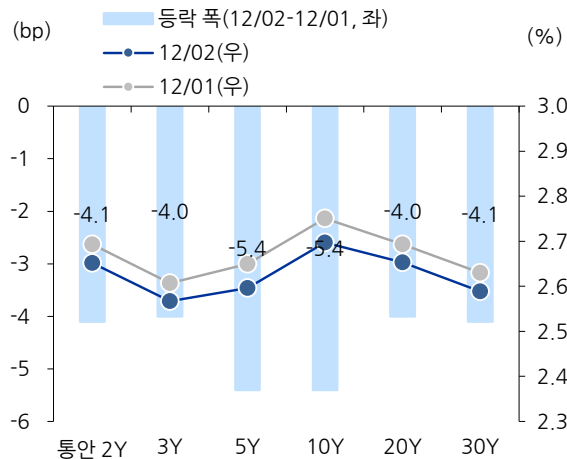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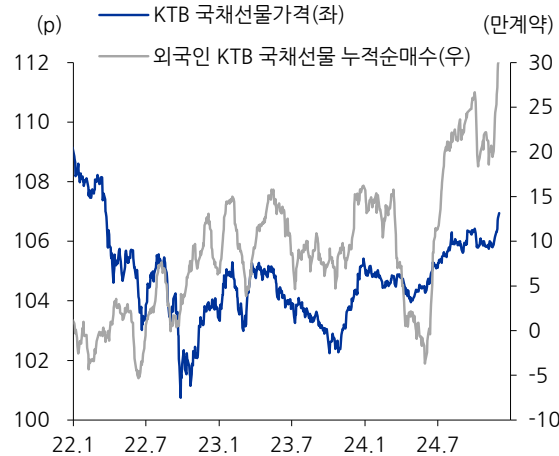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2/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67%	-4.0	-20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697%	-5.4	-22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3.0	14.4	14.7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94	16.0	6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20.02	70.0	212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182%	1.9	-19.5
	미국채 10년물	4.192%	1.5	-21.1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0.9	1.4	2.5
	독일국채 10년물	2.032%	-5.6	-17.5
	호주국채 10년물	4.335%	-0.8	-15.1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우호적 수급, 지표 부진 영향
-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 강세 출발. 개장 전 발표된 국내 수출 부진으로 추가 인하 기대도 지지됨. 30년물 입찰, 강한 수요 확인되며 금리 하락 뒷받침
- 아시아장 미국채 금리 상승, 1,400원을 상회한 원달러 환율에도 차별화된 경제여건 인식 속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지속. 3·10년 금리, 22년 3월 이후 최저치 경신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지표 호조, 트럼프 발언 소화
- 예상을 웃돈 미 제조업 PMI들과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인플레이 우려 자극. 트럼프, 탈달러화 추진하는 브릭스 국가에 100% 관세 부과를 경고
- 주 후반 고용지표 앞둔만큼 금리 움직임은 제한적. 이 외 매파인사로 분류되는 월러 이사, 12월 인하 가능성 시사한 점도 일부 영향
- 금일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, 한국 11월 CPI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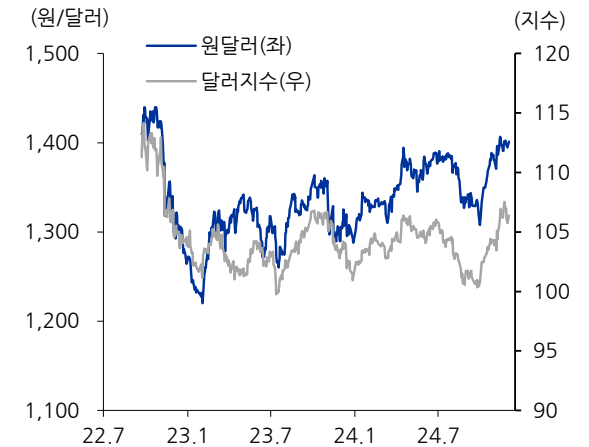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2/2일	1D	1W	YTD
환율				
원/달러	1,401.30	0.5%	-0.1%	8.8%
달러지수	106.39	0.6%	-0.5%	5.0%
달러/유로	1.050	-0.8%	0.1%	-5.0%
위안/달러(역외)	7.29	0.5%	0.5%	2.3%
엔/달러	149.53	-0.1%	-3.0%	6.2%
달러/파운드	1.265	-0.7%	0.7%	-0.6%
헤알/달러	6.07	1.5%	4.4%	25.0%
상품				
WTI 근월물(\$)	68.10	0.1%	-4.4%	-5.0%
금 현물(\$)	2,637.29	-0.5%	0.4%	27.8%
구리 3개월물(\$)	8,996.50	-0.2%	-0.5%	5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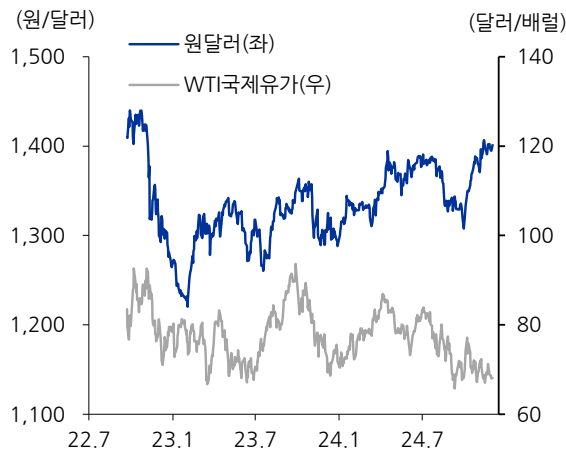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6.60원 상승한 1,401.3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01.70원 마감.
- 지난 주말 트럼프의 브릭스 상대 관세 위협으로 달러가 재차 강세 전환.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도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더 강화. 그간 강세를 보이던 엔화도 약세 전환.
- 달러-원은 1,396.00원에서 출발해 개장 직후 상승폭 확대. 점심 무렵 1,404.50원까지 상승했으나, 당국 추정 물량이 일부 나오는 등 경계감에 상승폭 일부 반납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기 지표 호조와 유로화 급락 속 하락.
- 11월 ISM 제조업지수는 48.4로 시장 예상(47.7)을 상회, 5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. 10월 건설지출도 +0.4%(M)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 호조. 4분기 GDP Now는 +3.2%로 급등.
- 반면 프랑스 의회가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유로화는 약세 지속.
- 월러 연준 이사는 현재로서는 12월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으나, 데이터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동결로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.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함.